



What's Up, OITA!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인회,유학생 OB,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께 오이타의 "지금"을 전해 드립니다

2026년 1월 12일~13일까지 대만에서 국제·경제교류의 촉진, 관광객 유치 및 현 특산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통합적인 지역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대만 교류 촉진 임무~

〈주요내용〉

- 오이타현 기업유치세미나—in 타이베이
- 공식 리셉션 [오이타현의 밤]
- 대만 일본 관계 협회 방문
- 일본 대만 교류 협회 방문
- 현 지사 오이타현 특산품 홍보



[오이타현의 밤] 연회장에서 선보인 방어 회 뜨기 퍼포먼스



오이타현 기업유치세미나—in 타이베이



대만 일본 관계 협회 방문



백화점에서 열린 오이타현 특산품 페어



일본 대만 교류 협회 방문



News from Beppu City

베피시 소식

베피시
홈페이지



언제든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시 · 베피

아트 · 프로젝트 [ALTERNATIVE-STATE]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온천 관광도시 베피. 이 도시가 언제든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게 만드는 유명 예술가들의 인상적인 미술 작품들이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극과 시 낭독, 음악으로 구성된 오디오 작품도 일본어와 영어로 제공되어 베피 시내를 거닐면서 예술 작품 감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베피 온천 여행에 예술을 더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베피의 매력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참가 아티스트

마이클 린/메/쿠리바야시 다카시/우츠미 아키코/나카자키 토오루/툼 프루인/사이토 세이이치/사르키스/오카치마치 카이토

■ [ALTERNATIVE-STATE] 공식 사이트 <https://alternative-state.com/>



Photo by Shintaro Yamanaka (Qsyum!) ©Mixed Bathing World Executive Committee

News from Nakatsu City

나카쓰시 소식

나카쓰시
홈페이지



새로운 명소 탄생! [가라아게 조형물]과 국내 유일의 화성(花城)



가라아게의 성지 나카쓰에 새로운 상징물이 탄생했습니다. 이곳 나카쓰 휴게소에 등장한 [나카쓰 가라아게 조형물]과 하치멘 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인생샷 가능!

일본 3대 수상성인 "나카쓰성" 이 일본 국내 유일의 화성(花城)으로 리뉴얼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이시하라 가즈유키씨가 직접 꾸며, 사시사철 다채로운 꽃과 성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News from Hita City

히타시 소식

히타시
홈페이지



약 1만 발의 불꽃이 수놓은 물의도시 히타의 밤하늘



제79회 히타 카와비라키 관광축제

기간 : 5월23일(토) · 24일(일)

최고의 볼거리

이틀 밤을 연속으로 대형 불꽃축제 개최: 분지의 지형으로 인한 배아리가 온 몸을 올리는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의 도시만의 이벤트: 미쿠마강을 무대로 한 [한기리 통 겐페이 전쟁]과 보트 경주 등 강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타의 여름을 여는, 열기 가득한 이틀을 즐겨보세요!



News from Saiki City

사이키시 소식

관광 마을 만들기 사이키
홈페이지



사이키시에서는 봄철 별미로 사이키 앞바다에서 양식하는 "사이키 참치"를 2023년부터 홍보해왔습니다. 올해는 봄에 특히 맛있는 해산물을 더해, "참치, 복어, 광어, 도미, 무늬오징어, 전갱이, 참굴" 등 7가지 다양한 풍미를 시내 16개 가게에서 사이키시만의 지역 요리로 즐길 수 있는 [사이키의 봄, 방방굿굿 생선 탐방] 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최 기간: 2월14일(토)~4월12일(일)



여러분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오이타현 우사시 출신, 현재 런던 거주 중인 가와카미 요시히로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오이타에서도, 해외 진출을 도전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를 더욱 당연하게 만들고 싶다.

◆자기소개

오이타현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사시 출신의 가와카미 요시히로 (영어 이름: Yoshi) 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오이타 캐논 주식 회사에서 4년, 오이타 시청에서 약 3년 반 동안 근무 후, 영국의 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오이타에서 커리어를 쌓아 온 제가 왜 지금은 런던에 있게 되었는지,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이타에서 해외로"를 조금 더 가깝게

영국에서 세계 최상위권 대학원에 유학 중인 50명 이상의 일본인과 교류를 하면서 발견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관동·관서 지역, 특히 오사카시 출신으로, "오이타에 배우고, 오이타에서 일한 뒤 해외로 나간다" 라는 경로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방이니까 해외는 멀다" 는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바꾸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출발점입니다.



◆대학원에서의 배움과 "나카쓰"의 인연



제가 유학했던 학교는 런던에 있는 킹스 칼리지 런던 (King's College London) 입니다. 사실 이 대학은 게이오 대학 (慶応大学)의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타에는 이 배움의 출발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옆 나카쓰시에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 구 저택·기념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유키치가 당시 어떻게 배우고, 어떤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았는지 그 일부분을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이타와 런던이 시대를 거슬러 어딘가에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두근거리지 않나요? 참고로 제 이름은 요시히로 (慶大)인데, 저 역시 이 인연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영어교육 (TESOL) 과 현재 활동

대학원에서는 영어교육 (TESOL)을 전공하며, 제2언어 습득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영어 교수법을 체계적으로 익혔습니다. 또한 런던의 어학교 (International House London)에서의 실습을 통해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 10개국 이상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경험도 쌓았습니다. 현재는 일본계 기관의 런던 연구소에서 해양 관련 분야의 유럽 최신 동향을 조사하여 일본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약 7년 반 동안 모은 자금을 투자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 학습 팁" 과 "대학원유학", "해외취업" 등에 대해, X (구 트위터)를 통해 발신하고 있습니다. (Yoshi | 英語のすゝめ@Yoshi_in_UK)



@Yoshi_in_UK→



◆끝으로



오이타의 온천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오이타 사투리가 그림습니다! 저는 영어를 진심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것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만약 "오이타에서 런던으로 갈 예정", "해외진출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타에서 해외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앞으로 한 명이라도 늘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현인회의 활동이나 유학생OB 근황 등,
세계 각지의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이키시

남녀노소 누구나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반조 물고기관 & 야요이노유



영국 국제교류원
부텔 로사

하루 온종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미치노에키 (특산물 판매, 지역 홍보 휴게소) 야요이의 [반조 물고기관]과 [야요이노유]를 방문했습니다. 수족관과 목욕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알뜰 세트 티켓도 있어, 충분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반조 물고기관



2001년에 개관한 반조 물고기관은 반조강을 테마로, 지역의 민물 고기와 해외 열대 지역의 민물고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조는 실외에 설치되어 있어, 자연과 비슷한 환경에서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과 자연을 연결하는 정책



오이타
장수도롱뇽

지역의 귀중한 특별천연기념물인 오이타 장수도롱뇽부터, 해외에서 온 희귀한 물고기까지, 다양한 전시를 통해 세계 자연의 풍부함을 느낄 수 있는 수족관입니다.

또한, 하천 낚시 체험과 야생 닭 관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시 관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조 "뒤편" 물고기관



(사진제공:반조 물고기관)

현재, 뒷모습을 들여다보다 특별전 (2026년 5월10일까지)에서는, 직원들의 하루 업무와 사용도구들을 배울 수 있는 독특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사료의 냄새를 맡아보자], [물갈이]와 같이 재미있는 체험도 있으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야요이노유



대욕장 (개관 당시)



로일리 (완공 당시)

(사진제공:야요이노유)

미치노에키 야요이 부지 내에 있는 야요이노유는 일본식과 서양식 대중목욕탕, 그리고 2022년에 개관한 핀란드식 사우나 (로일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넓은 욕탕과 노천탕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사우나도 가볍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굿즈와 삼대 가족이 함께 온 모습을 보며, 지역에 깊이 뿌리내린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악역" 으로 몰린 물고기?



피라냐 • 나테리

오해예요...

보통 사납고 무서운 인상을 주는 피라냐는 사실 겁이 많은 면도 있습니다! 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수조를 청소할 때마다 구석으로 도망가 버린다고 합니다.



반조 물고기관과 야요이노유를 방문하며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깊이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숨은 낚시터"와 같은 한적한 곳에서 느낀 오이타의 자연과 지역의 분위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쉬

다케타시 기리시탄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국국제교류원
안수영

기리시탄 동굴예배당



기리시탄은 에도시대의 가톨릭 신자를 의미한다. 인구의 단 1%미만만이 기독교인인 일본이지만, 오이타현에는 신기하게도 기독교 역사가 스며 있다. 쇼와28년(1953년)에 발견된 동굴예배당은 금교령이 전국에 반포되던 시대, 가톨릭 신자들과 선교사들이 몸을 숨겼던 장소로, 현재는 [오이타현 지정 사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기리시탄 자료관에서 도보로 약 10분. 이곳에 도착하니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리고, 부드러운 햇살이 조용히 내리쬐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조용한 동굴을 잠시 걷다 보니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1549년, 하비에르 선교사가 일본에 온 후, 일본에서의 기독교 포교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그 후, 금교령 하에 박해와 압박이 극심해지며 가톨릭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형태로 신앙을 계승하는 '가쿠레(잠복) 기리시탄'이 되었다. 다케타 기리시탄 자료관은 이들의 역사와 기리시탄 역사 관련 유물의 보존 및 전시를 위해 헤이세이 28년(2016년)에 개관했다. 코로나전에는 규슈 지역 밖과 해외에서도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며 단체 방문도 왕성했다고 관장님은 회상하셨다.

이러한 역사의 한 쪽이 이대로 잊혀지지 않도록, 방문객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만 오천 명의 기리시탄이 살았던 마을, 다케타. 곳곳에서 기리시탄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케타 기리시탄 자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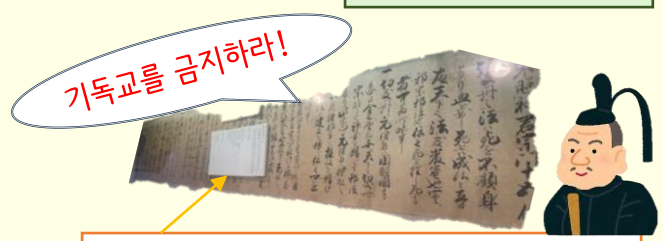
주소
오이타현 다케타시
다케다마치 581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미국인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금교령에 의한 박해 하에 그 당시 기리시탄이 십자가와 예수님 조각상을 불상에 숨긴 모습



천령 히타 히나마츠리

미국국제교류원
린 엘리시ানা



여러분, 히타에서는 매년 봄에 히나마츠리 (여자 어린이의 날)가 열리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개최되는 [천령 히타 히나마츠리] 기간 중에 히타를 방문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역사적인 옛 저택과 자료관 등 약 15곳에서
약 5,000점의 히나 인형을 전시하며 일본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히나 인형 뮤지엄인 "히나고텐"으로 향하는 길에 마메다 거리의 오래된
골목마다 장식된 히나 인형과 등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히나 인형 뮤지엄 히나 고텐(御殿)

이곳에서 전시된 "오키아게 히나"는 종이와 천으로 만든 히나 인형으로,
서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에도시대 후기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지역 여성들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인형은 가는 대나무 막대
지지대로 세워져 있으며, 각각의 의상과 섬세한 표정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형은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완성하는
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항금의 방"에는, 상설 전시로 일본 최대 규모의 히나
십단이 자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히나 인형과 히나
도구 (미니어처 살림도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은
식기와 이불, 기모노는 물론 악기까지 있어 매우
귀여웠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느껴져,
제작에 들인 수고와 정성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서 있는 히나 인형을 처음 보았습니다. 여성 히나 인형은
여러 겹의 기모노를 입고 있어, 매우 따뜻해 보였습니다.
남성 히나 인형은 양쪽 팔을 펼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더
당당하게 보이기 위함인지 여성 히나 인형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기 캐릭터를 본뜬 히나 인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히나 인형 뮤지엄에서는 축제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며 꼭 한번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오이타현 히타시 마메다마치 13-6

개관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마지막 입장: 오후 4시 45분) ※휴관 : 1월 / 일

입장료: (개인) 300엔 (단체) 200엔 (20명이상)

※자세한 사항은 본 시설 측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인사

중국국제교류원
진한위



무르익은 봄바람이 뺨을 스칠 때, "또 한 해가 지났구나"하고 문득 느꼈습니다.

지난 일 년은 순도 높은 일본주와 같이 소량으로도 깊은 향을 남긴 시간으로, 그 모든 순간을 글로 담기에는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삼가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오이타에 와서 다행이었던」

아직 어색하던 첫 봄이 지나, 여름에 접어들면서 학교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먼저 다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통역 업무 현장의 활기를 느낀 저는 대학 시절 통역가를 꿈꾸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프리 토크 수업은 저에게 있어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여러분이야말로 저를 성장하게 해준 진정한 선생님이셨습니다. 현 내 취재를 통해 조금이나마 오이타를 알아가며, 저에게 "오이타"라는 단짝도 생겼습니다. 현 밖에서 토리텐 간판을 보게 될 때면 "토리텐은 오이타건데!"라며 괜히 심술이 나기도 합니다(웃음).

「이해가 깊어지다」

어느 날 아침, 일본인 동료가 "컵에 남아있던 물이 혹시 지진이 나면 위험할 것 같아서 버렸는데, 괜찮았을까요?"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처 신경 쓰지 않던 부분이 일본에서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 상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민망해 하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어찌면 이러한 일상의 작은 경험에 기반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리를 비울 때마다 반드시 컵을 비워 두고 있습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 함께 깊어집니다. 중국의 춘절이나 한자에 대해 소개할 때마다 기억의 저 편에 있던 향수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식이 부족한 점이 아쉽게 느껴져,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찾아보며, 제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난 일 년 만큼 조국에 대해 가깝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타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 대단한 일이라기보다, 이런 일상이 쌓여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국하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문화 충격을 겪게 될 지도요(웃음). 그것 또한, 타문화 교류의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죠!

「고마워요. 우리 다시 언젠가!」

부임 인사말을 작성할 때의 설렘이 아직도 선명한데, 어느덧 퇴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분명, 지난 1년 동안의 만남을 통해 저는 성장했고, 이별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이타에서의 생활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활력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니, 이 헤어짐도 서로 미소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신세를 진 본고의 땅 오이타와 직장 동료 여러분, 그리고 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앞으로 오이타의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만 퇴임 인사를 마칩니다.

고마워요, 오이타.

우리 다시 언젠가!



From our Reporters

국제교류원 소식



공정에너지를 찾아서 (≧▽≦) /

영국국제교류원
부텔 로사



최근에 읽은 심리학 책에서 "매일 조금씩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점점 더 긍정적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형성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을 '긍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산책하며 거리를 걷다 보면, 상점가에 스며드는 햇빛이나 거리에 있는 동물 조각상, 그리고 골목에서 맞아주는 고양이와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조용한 거리를 여유롭게 걸었던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지 불안함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이타의 차분한 분위기가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작은 것들에 눈을 돌릴 수 있게 해 주는 곳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이타현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며 지내고 싶습니다.



천장 돔에 비치는 아침 햇살



꽤 신사적인데!



고양이가 보이나요?



“오이타”가 들려온 순간

중국국제교류원
진한위



국제교류원 일을 올해로 그만두기로 결정한 뒤, 마음 속 어딘가에 아쉬움과 작은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고작 일 년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일본 라디오에서 "다음은 오이타의 00씨 입니다"라는 멘트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어? 오이타다!"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봄비는 곳에서 문득 고향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 하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동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지. 저에게 있어서 "오이타"는 모두의 미소, 차분한 거리, 사무실을 비추던 햇살입니다. 토리텐은 당연히 오이타의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웃음). 이제 오이타는 둘도 없는 추억을 함께 떠올릴 수 있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이 생겼습니다.



오이타 원조의 토리텐



오이타를 발견하자마자



그동안 신세를 진 소닉 열차

From our Reporters

국제교류원 소식



싱그러운 봄의 신호, 딸기!

한국국제교류원
안수영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하면 바로 딸기를 보았을 때입니다. 봄을 기다리며 새하얀 딸기 꽃이 피어나는 모습은 싱그러운 봄이 다가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원래 딸기는 봄에서 초여름 사이가 제철이었지만, 최근에는 하우스재배가 활발해지면서 12월에도 겨울 딸기를 빈번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기를 사랑하는 저에게는 최고의 소식이지요!

새콤달콤한 맛에 봄 향기를 머금은 딸기는 비타민 C가 풍부해 감기 예방 등 건강에도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이치고)과 한국의 딸기는 모양이나 맛에서 다른 점이 있지만 어느 쪽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각각 향이 진하고 매우 맛있습니다. 특히 오이타현에는 8년에 걸쳐 개발된 딸기 브랜드, "베리츠"가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C도 보충할 겸,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러 딸기를 사러 가볼까요~



한국의 딸기



오이타현산 딸기 (이치고)

전 국제교류원 노지영씨
(2020~2025 근무) 소식

보고 싶은 오이타현 여러분! 저는 한국 서울 근처에서 언어와 콘텐츠를 잇는 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류원을 마치며 오이타의 매력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좋은 기회로 기사를 쓰게 되어 공유합니다.

제 사랑, 받아 주실 거죠?

《클레어 서울 사무소
Another Sky-일본·두번째 고향-》



올해는 더욱 신중하게!

미국국제교류원
린 엘리시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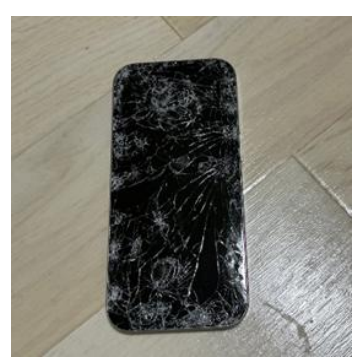
저희 어머니께서는 자주, "자신이 태어난 육십갑자의 해는 가장 위험한 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 상태와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위험한 일은 되도록 피하고 늘 당부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동안은 그저 중국의 미신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올해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중요한 물건을 거의 잃어버리지 않는데, 올해가 되면서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분실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먼저 게임센터에서 많은 양의 초콜릿을 뽑게 되어 기뻐던 나머지, 그 장소에 그대로 지갑을 두고 와버렸고, 그 다음주에는 버스정류장 근처에 떨어뜨린 핸드폰 위로 버스가 지나가 완전히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두 물건 모두 되찾기는 했지만, 핸드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ㅠ).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올해는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피이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올해는 특히 더 조심합시다!



이때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



내용물 그대로 무사히 되찾다!



버스가 밟아 망가진 핸드폰